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분석

김진형*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e-mail:jinkim@chungwoon.ac.kr

A Study on standard farm-house design

Jin-Hyung Kim*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농촌주택표준설계도란 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표준주택설계도의 평면 특징을 고찰하고 최근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특징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1. 서론

농촌주택의 평면 배치 형식은 시기별로 나누었을 때 197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주거 형식과 그 이후의 계획된 표준주택 평면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농촌의 주거환경에 대한 농촌거주자들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정부의 시책으로 1970년도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농촌주택의 모델로 농촌표준주택설계도(이하 표준설계도) 보급으로 농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축유형의 연구와 함께 농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의도에 의하여 보급되었다.

표준주택설계도면이란 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한다(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그 목적은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와 자재 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표준설계도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할

용하면 별도의 설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는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공간적 대응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도시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수직적인 집적화가 강화되어 밀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아직까지 단독 형태의 주택이 주를 이루지만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 농촌 근대화 사업은 지붕개량, 취락구조개선, 노후·불량주택개량,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더불어 농어촌표준주택의 개발 보급은 계획마을을 탄생하게 하였으며 농촌주거 환경의 질서를 재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도의 산업화와 맞물려 농촌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지표와 선진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면단위 중심마을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계획 마을을 만들어 나갔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주택개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마을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소권역 단위로 종합 개발하여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쾌적함을 증진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은 농촌 주민의 만족과는 항상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주택의 개량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표준설계도의 시기적 특징을 고찰하여보고 사용자의 요구와의 관계를 통해 최근 개발된 표준주택설계도의 특징과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추후 계획되어질 표준주택 설계도의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농촌주택의 현황

2.1. 농촌주택의 특징

일반적으로 농촌이라 하면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였고 농촌주택은 가족의 주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주택과는 달리 주거와 농작업을 겸하는 겸용주택의 특성을 가진다. 즉 농촌주택은 실제 농업이나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현지 주민의 실 거주용 주택이다. 이에 따라 농촌주택의 넓은 의미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표 1] 시대별 주거 특징 및 생활방식 변화

구분	시기별 특징	의식	주거생활방식
1970년대	도시인구 집중 개인주의 성향 아파트 건설 생활 새마을 운동	서구 생활 방식 선호 핵가족화 대량생산 소비증대	입식생활 식·침·분리·유도·연단·유류 사용 가전제품 사용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 대단지 아파트 건설 연립주택 일반화	개인주의 합리화 이웃 개념 상실	유류, 가스사용 일반화 입식 생활 정착 아파트 고층화
1990년대 이후	소득 수준 향상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	소비 수준 향상 디자인에 대한 관심	자동차 일반화 홈오토메이션 고층아파트 일반화

농촌주택은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요인, 물리적 요인 등이 도시 주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주거환경, 평면형태, 재료의 변화를 가져왔던 농촌주거공간의 형태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1970년대에 들어 구조재료의 변화로 인한 평면구성과 외관의 형태 등이 또 다른 모습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국가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양적, 질적인 확대와 발전을 보였으며 198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추진

된 이후로 거주공간의 집중화와 실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곁집형식의 조적조가 나타나게 되고, 구조와 재료 등이 아니라 평면구성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주거공간과 부속사가 분리 배치되고 마당의 기능이 작업공간으로서 보다는 주거의 외부 공간적 성격이 강해지며, 주거동으로 내부동선이 집약되고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약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의 배치 및 구조가 도시주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래식 농촌주택에서는 화장실이 별동으로 옥외에 배치되었으나 초기 도시주택과 유사하게 부속사에 배치되는 형식으로 변하거나 주거동 내부로 흡수되었다. 주거동 내에 흡수된 경우 역시 외부 출입, 재래식과 수세식변기, 욕실의 유무 등으로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주택의 실 구성 및 배치의 변화는 안채, 방, 마루, 부엌 등은 주생활공간으로 사랑채 및 행랑채는 거주공간과 농작업공간, 농기구 및 농산물 보관, 축사 등의 생활작업공간을 이룬다. 소규모 농촌 주택에서 안채는 거주 및 생활 작업공간을 함께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一’ 자 형이나 ‘ㄱ’ 자 형의 전통적인 양식을 갖춘 주택이 다수이다. 기존의 농촌주택 역시 전통적인 농촌주택의 형태인 ‘一’ 자 형의 평면형태를 갖는다. 반면 신축주택은 거실을 중심으로 주위에 실을 배치한 도시형 평면으로 평슬라브 형태를 가지며 대부분 80년대 이후에 건축되었다.

생활양식과 주의식의 변화 및 경제사정의 향상에 따라 본체의 면적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점차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도시적 거실중심생활 및 입식생활에 뒤따르는 식탁이 있는 입식부엌과 욕조, 변기, 세면대를 갖춘 욕실 등 현대화된 농촌주택이 도입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농촌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나 외부 환경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개인의 욕구와 의사에 따라 생활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을 신축하고부터라고 볼 수 있다. 농촌주택의 종류로는 크게 표준평면보급에 의한 개량주택¹⁾과 전적으로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주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²⁾

1) 농촌주택을 근대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든 농촌주택개량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 같은 정책적인 타의에 의해 진행된 부엌, 변소, 지붕개량 같은 부분적인 변화나 동 또는 마을 단위로 수행된 전체적인 변화를 가한 주택을 말한다. 엄인섭, “농촌주거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91.

자주주택의 평면 특성은 거실과 현관, 내부 욕실을 갖춘 도시주택의 평면형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앞쪽에 안방, 거실, 현관 그리고 뒤쪽에 부엌 및 식당, 욕실과 건넌방등이 배치되면서 현관을 통한 거실로의 접근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평면구조상의 특성은 재래주택의 대표적 실배치 방식인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의 방식이 개량주택에서는 부엌-안방-마루-건넌방으로, 최근의 농촌주택에서는 안방-거실-부엌 및 식당-건넌방의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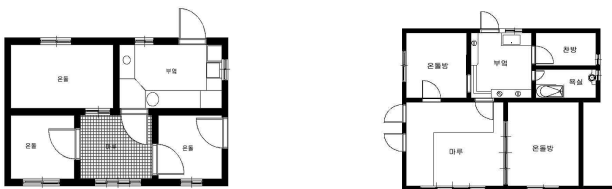
2.2. 표준주택설계 사례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정부에 의해 제시된 표준주택의 모델은 10평에서 25평 규모까지 총 71종에 달한다. 1972년 최초 정부에 의해 제시된 표준주택설계안은 15종이며, 농촌주택의 근대화 과정에서 1979년 이후 표준주택형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 농촌의 주택이 획기적인 변화 시기를 맞이 이전의 1970대 초반의 모델과는 달리 10평 규모의 소형의 평면이 보이지 않고 25평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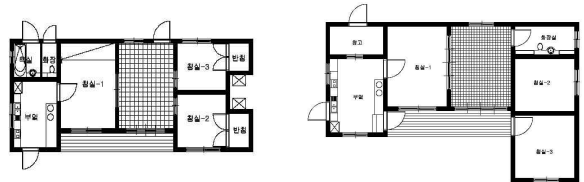
A-3, 14.4평 A-4, 16.6평형
[그림 1] 70년대 농촌주택 개발유형

1980년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일률적인 표준주택 보급에서 탈피하여 지방단체별로 지방특성을 고려한 평면이 등장 하게 되어 15평형이 감소하고 18평에서 25평 사이의 모델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78-15평-다형 79-25-2-다, 25평형
[그림 2] 70년대 후반 표준주택 설계안

80년대 농촌형 표준주택설계도의 평면구조를 살펴 보면 서양화된 건축양식의 보급 등으로 실내 화장실과 욕조를 배치하는 시대적으로는 획기적인 농촌 주택의 평면구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건축자재의 발전으로 난방을 위한 단열재 시공과 보온을 위한 이중창 시공이 나타났다. 이 시기동안 실내의 변소설치, 현관의 구성, 입식부엌 형태의 평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마루의 형식 또한 거실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82-16-가, 16평형 82-18-가, 18평형
[그림 3] 1980년대 표준주택설계안

최근 10년 이내의 표준형주택안은 1995년형의 표준주택설계도에서 제시된 주택의 규모는 20평형 6종, 22평형 4종, 25평형 10종, 28평형 2종, 30평형 3종, 35평형 4종, 36평형 3종, 38평형 2종의 주택 모델이 제시되었고, 1997년에는 입실형 12, 15평 2종, 목조형 17, 19평 중, 2층형 32, 43평 2종, 복합형 25평과 44평형의 작은 규모의 주택부터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안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공개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면적이 85~185㎡(25.7~56평)로 다양하다. 또 一자(字)형,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ㅁ자형, 온실형, 복층형, 2세대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작성됐다. 설계도는 책자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작돼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웰촌(www.welchon.com)에서도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설계도면은 새롭게 변화된 IT 환경에 발맞추어 온라인상에 면적별(65㎡미만에서 130㎡이상), 주택유형별(목조, 철골, 조적, 경량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적/경량철골조)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급 방식은 과거에 직접 열람을 통한 방식보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설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2) 엄인섭, 농촌주택의 공간이용 및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8호, 1998.

3. 21세기 농촌주택의 방향

과거 새마을운동사업과 함께 출현했던 농어촌표준주택은 새로운 주거공간 창출의 시도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환경개선사업 상의 현대식 농어촌주택모델은 총 43건으로 2,156가구가 농어촌표준설계도를 활용하였다. 최근의 표준설계도의 특징을 들어보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는 점과 더불어 도시근교마을과 도시출퇴근자를 위한 비농가주택도 고려한 점이다. 평면개발은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박공형과 자유형 지붕형태의 2층 주택을 볼 수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채도를 낮추어 마을의 전체적 조화와 이타하지 않는 계획을 볼 수 있다. 비농가 주택의 경우 펜션을 건축계획에 도입하여 농외소득도 고려하는 점 등은 농촌 주택의 다양화를 이끄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과거 농촌주택 개발이 편리성과 현대성의 구현화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농어촌 주택은 농촌 사회의 변화양상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절실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서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웰빙 공간의 창출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위주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도시 농촌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기존의 농가주택에 더불어 깨끗한 주거환경의 전원형 계획마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별 주택의 계획과 더불어 마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더욱 요구된다.

4. 결론

관주도의 실적위주 또는 독선적인 엘리트적 건축보급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IT기술의 도움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훨씬 큰 보급력과 다양한 평면형태의 개발이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한 곳의 업체를 통한 건축계획도면의 개발은 다양성의 한계와 획일적인 개념이 되기 쉬운 약점을 내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 되어 사용자 중심의 설계참여와 마을 조성시 지역성과 변화하는 신문화의 도입을 절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마을 개선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며 마을의 전통성에 입각한

아이덴티티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 중심의 표준설계도 개발과 수정사업, 마을 개선 사업 공청회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외국의 농촌 주택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막기후의 이스라엘은 기존의 농촌주택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각기 지역의 풍토와 그에 기반한 재료와 양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통성을 이어나가는 점은 우리가 배울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평면도 위주의 개발에서 더 나아가 전통성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축재료의 개발과 사용자 의견 반영의 기회 확대를 통한 융통성을 통해 웰빙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 하는 표준주택설계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참고 문헌

- [1] 엄인섭, “농촌주택의 공간이용 및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8호, pp. 51-52, 1999.
- [2] 최찬환, “마을유형에서 본 농촌주택의 구조유형과 주공간 형식의 변화양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권, 2호, 통권172호, pp. 14-16, 2003.
- [3]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주거환경정보고서, 2002.
- [4] 농림부, “농촌마을 특성화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 연구원, 2001.
- [5]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welchon.com>